

세계의 養鷄產業動向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이집트

미국의 10여개 대학에서 가금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 40여명이 이집트의 양계산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하여 2년 동안 AIDC (Agency of Internatioonal Development)의 지원에 의한 5백만\$의 계약으로 이집트에서 양계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계획의 계약회사는 미국의 마스테크 (Math Tech)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식량 농업 영양분야의 책임자인 조지오메이씨가 2년간의 대규모 사업 총책을 맡고 일을 착수하고 있다. 오메이씨는 그들이 맡은 이 계획은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계분야의 연구사업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20여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로서 양계경영, 농촌사회학, 가금생 산물의 가공처리, 사료제조 및 생산물 운반에 관한 연구진들이라고 하였다. 마스테크회사는 오래 전부터 플로리다대학의 식량농업 연구소와 유대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도 이 대학의 직접적인 지원을 얻어 가금 학과의 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농림부차관을 비롯한 경영실무진 86명의 양계실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맡아서 해주

기로 하였다고 한다.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던 이집트의 양계산업은 40개소의 브로일러사육농장이 320개의 계사에서 600만수의 브로일러를 기르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평균 15만수 정도의 규모로서 1개 농장이 사육하는 닭 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40여개소의 양계단지 형태의 농장마다 부화시설과 기타 위생, 관리 생산물관매 등에 관계하는 담당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도계처리장이나 생산물 운반을 위한 냉동차도 없고 사료의 원료와 사료배합 기계의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의 닭들에게 완전 배합사료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때에 AID의 지원에 따른 마스테크회사의 사업목적은 이집트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이집트의 주어진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집트의 양계산업 발전에 더 없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아직은 세부적인 분석결과가 없지만 마스테크회사의 일시적인 판단으로 봐서 사료의 원료, 질병 예방대책, 생산물 처리, 냉동저장, 그리고 생산물의 판매체계 등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우선적으로 4천만\$ 상당의 양계기구를 동구권에서 구

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집트는 6년전 처음으로 천만\$ 상당의 양계설비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또 2차로 천만\$의 기재를 도입했을 때 벌써 처음 들어온 사용방법이나 수리기술이 부족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망가진 기계들은 미국의 기재회사들이 아프트서비스(After Service)를 해 줄수 없을 정도로 모두 망가져 있었고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사막지역에 설치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250만수 규모의 산란계농장에서도 모두 자동시설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오메이씨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마스텍회사의 사업수행 과제 중에 부분적인 일들이지만 이러한 작동정지 상태의 시설을 기술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대규모 개인농장에서도 마스텍회사가 목적하는 바에 호응하여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양계산업에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한 AID지원 하에 사업목표라고 하였다.

이집트의 개인 양계농장인 여러개의 양계단지에서는 스스로 개인 투자로 마스텍회사의 자문을 받아 경영의 합리화를 재분석하여 이집트의 양계산업발전에 깊이 동조할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와같은 순조로운 마스텍회사의 대규모 사업에 관여하는 연구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계 전문가인 베리랜드대학의 Shaffner박사, 농촌사회주의 학자인Larson박사, 양계경영학자 Bell박사, 푸—두대학의 양계Marketing전문가 Leonard박사, 펜실베니아대학의 양계학과 주임교수인Goodwin박사, 캘리포니아대학의 가금생산물처리 전문가인 Brant박사 등이라고 한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농림부에서 조사된 1978년 말의 닭고기 생산량은 24,840TON이고 계란은 10억 2천만개로 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

량은 0.35kg, 계란은 14개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양계산물 소비국 중의 하나로 파키스탄은 인정받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농림부 보고에 따르면 가장 값이 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양계산물의 중요성 때문에 1978년 정부는 양계산물의 증식 5개년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이 끝나는 1982년에는 산란계 1,372만수, 브로일러 4,921만수의 사육으로 닭고기 49,210TON, 계란 30억 2천만개를 증가목표로 세워 전력을 다할 것이라 한다. 현재는 2105개소의 산란계농장에서 384만수의 산란계와 1300개소의 브로일러 농장에서 970만수의 브로일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산란계는 4.2배 브로일러는 5배정도의 사육수수의 증가를 1982년에 도달 목표로 잡고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양계산업 권장정책으로 양계장 설립에 관한 모든 재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Tax holiday를 여러번 설정하여 정부 융자금의 빠른, 대출, 사료원료와 예방약의 염가판매, 외국 종계와 종란의 수입을 위한 외환업무의 간소화,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할인 판매 또 양계에 관계되는 일들의 외국 경쟁에 대한 보호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아마 1982년 까지 정부의 계획된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년에도 양계 사양수수와 양계사료의 증가량은 연간 32%였는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양계산업이 발전되리라는 전망으로 1982—83년 정부의 목표한 사양수수가 요구하는 사료량은 550,800TON인데 기존 사료공장과 정부에서 허가한 증설될 사료공장의 생산능력은 모두 367,000TON밖에 되지 않아 부족량 183,800TON의 충당을 위한 양계분야에 관계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양계산업 발전 계획에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여 정부의 입안자들은 더욱 굳건한 양계산업 발전의 징조라고 기뻐하고 있다.